

사설

문화재 재평가에 거는 기대

해방 50년, 그간 우리의 자주성 확립과 국권신장의 의지는 분명했다. 그러나 6·25전쟁과 그에 이어지는 경제성장에만 열중한 나머지 자신의 주변을 사려깊게 돌아볼 틈이 없었던 것 같다.

가령 국민학교의 명칭 변경은 겨우 금년부터 이루어졌다. 본래 '국민학교'란 이름을 치하 나치독일에서 시작되었고 군국주의 일본이 그것을 본받아 식민지하의 우리에게 강요한 것이다. 나치독일과 일본은 패망 즉시 이 명칭과 체계를 철폐했으나 해방된 한국에서는 50년만에 겨우 그 명칭만을 바꾸었을 뿐이다.

최근 일제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한 재평가가 거론되고 있다. 해방 반세기가 지난 이 시점까지도 일제 식민주의자들이 정한 한민족의 일이 담긴 문화재를 스스로 재평가하지 못했음은 우리가 내세워 왔던 일제 청산, 민족문화 신장의 구호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던가를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들 일련의 일에서 깊은 성찰과 민족으로서 일관된 철학의 결실함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실시되는 문화재 재평가는 깊은 성찰을 기본으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마다 민족에는 고유의 문화의지가 있으며 모든 문화현상을 나타내게 하는 '문화의 핵', 즉 원형이 있다. 어떤 민족일지라도 원형에는 풍토와 역사성이 있다. 이들 고유의 원형은 뚜렷한 개성을 지니며 시대적 상황에 어울리는 문화를 꾸려 나간다. 어떤 민족의 원형에도 우연이 없다.

그러나 이질적 원형에서 파생되는 문화현상을 불합리하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인이 중하게 여기는 문화재가 한국인에게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귀한 것이 일본인의 눈에는 보잘 것 없이 여겨지는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또한 같은 민족의 문화일지라도 시대의 문화정신이 달라질 때는 가

치의 기준이 정도될 수가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불교문화가 조선시대의 유교적 가치관으로 그릇되게 평가되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경주 박물관 앞뜰에 늘어져 있는 목이 잘린 불상들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특히 민족문화의 재평가는 한국인의 원형을 의식하는 초시대적인 관점에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한국 문화재를 일본의 가치기준으로 당시의 시대사조속에 조선시대를 중점으로 평가했다.

일제 때 지정된 문화재 503점 가운데 국보·보물급이 252점이고, 전체적으로는 50%이상이 불교문화재이다. 1600여년에 걸쳐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온 불교가 많은 문화재를 남긴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상당한 수준급의 불교문화, 예를 들면 불화등이 일본인의 팔이 때문에 가법적 평가되어 누락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록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일단 문화재로 지정받았다면 보존방법이 달라진다.

대량의 불교문화재의 압도적인 양을 감안하더라도 진정한 한국 문화재 지정에는 당연히 불교문화에 깊은 이해가 있는 인사가 많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고관의 망언이나 독도 문제와 같은 것이 터질 때마다 크게 분개했고 격렬한 대모도 벌였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투철한 민족의 기본철학과 일관된 태도이다. 그것은 우리 원형에 입각한 가치관으로 스스로의 역사문화 재평가를 하고 그 정신으로 일본을 대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문화마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 감성적으로 표현화된 일본의 망언에만 반응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문화재 재평가는 우리의 자주성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다.

열린 마당

화페도안 시비

'겨레 열' 차원으로 해석해야 마땅

영담 (석왕사 주지)

조상의 열과 혼이 살아 있는 민족의 문화유산을 종교적 대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모든 국민의 정신적 자주 역할을 해야 할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종교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신교 목사들이 화페의 도안이 종교편향적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사실에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감마저 느낀다.

특히 화페를 단지 금전적인 문제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린다는 점에서 한 종교의 색깔을 짚게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종교인의 자세라 할 수 없다.

우리 주위의 관공서를 비롯 공공시설에서 이와 유사한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만약 화페도안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화페가 특정 종교인 것이고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다면 결국 수백년간 이어온 우리의 문화유산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우상상징' 헌법소원 실효없을 듯

김용호 (변호사)

개신교 목사들이 제출한 화페도안변경 촉구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는 한국은행의 화페발행 자체를 공권력 행사로 보고, 공권력을 중재해 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헌법소원이 청구요건을 충족시킬지는 의문이다.

화페도안변경촉구추진위원회의 이번 헌법소원은 조상의 열과 혼이 살아있는 '민족문화유산'을 종교적 유산으로 해석한 것으로, 수백년간 이어온 우리의 문화유산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사고라 아니할 수 없다.

화페는 국가의 얼굴이다. 어느 특정 종교를 편애하거나 우호하기 위한 방편과 이기적인 의도로 도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그림으로 그려진다. 때문에 민족의 문화유산이 화페에 새겨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민족문화유산을 우상으로 치부하고 종교적 행위를 위해 문화유산을 부정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와함께 헌법재판소의 현명하고 명쾌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문화유산 종교상징 혼동말아야

김용현 (목사·기독교인권위)

이땅에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어느 누구든 남의 종교를 침해할 수 없고 침해당해서도 안된다. 최근 정부정책 가운데 종교편향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종교계 단체들은 종교편향 정책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4일 목사 20여명으로 구성된 화페도안변경촉구위원회가 종교색깔을 삭제한 화페를 발행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자신의 의견을 헌법소원을 통해 제시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화페의 도안이 종교편향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화페에 그려져 있는 도안이 특정종교를 상징하고 있다는 주장은 편협된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거리가 있다고 본다.

어쨌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종교편향이라는 지적이 있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으니 현명한 결과를 기대해 본다.

도안내용 종교편향 지적은 '역지'

오희도 (서울은행 불교행우회)

화페에 그려진 용, 봉황새, 다보탑이 우상이라며 일부 목자들이 제기한 화페도안 변경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화페에 그려진 도안들은 불교의 상징을 넘어 동양적 한국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더 어울릴 것이며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민족의 기원을 계승하려는 차원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유네스코가 지정된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 경내에 있다.

그럼에도 '우상이 그려진 흠있는 예물을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기독교인의 주장은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적 오류의 한 단면을 보이는 것이며 불교의 민족정통 맥을 훼손하고 말살하려는 의도로 비쳐진다.

근간에 일고있는 종교편향정책을 보며 한국불교의 조직 체계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화페도안 시비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불자들은 기독교인들의 집요한 종교편향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작은 일부터 조직적으로 대응해내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

지난달 24일 목사 20명이 화페에 도안된 그림이 우상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새 지폐를 발행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화페에 그려져 있는 용, 봉황새, 다보탑 등이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상이 그려진 흠있는 예물을 헌금하는 일이 더이상 없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상식밖'의 시비에 새삼 화페도안의 의미를 들여본다. (편집자 주)

발권부 조병수 부부장

화폐발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 발권부 조병수 부부장은 '화페에 그려져 있는 용, 봉황새, 다보탑 등이 특정종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과 관련해 '해당 화페에 그려진 용 봉황 새 등 다보탑은 우리민족의 정서를 나타내는 동물과 문화재를 도안으로 차용한 것일 뿐, 특정종교를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화페발행은 한국은행에서 화페의 종류와 모

'다보탑·용·봉황·사슴문양' 민족정서 표현위해 도안

삼은 화페 가운데 1천 원권과 1만원권을 도안한 장본인인 조 부부장은 "각자의 입장에서 일일이 트집잡으면 난감하다. 학과 용 문양이 들어있다 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은 과민반응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에 도안된 용 봉황 사슴(열쫂짐승이 아님)은 한국 중국 일본 동양권에서 성스러운 동물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용은 조선시대 임

현대만평



내 집처럼 왕래하기를...

목어

우리는 간증이 없으면 밥상을 차릴 수 없다. 한국사람들은 음식의 간을 대체로 간장으로 맞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호화스런 잔치상이라도 중앙에 간장종자가 빠지면 흉잡히기 십상이다. 이처럼 국민생활 나아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간장에서 발달물이 검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말 '입맛' 떨어지는 소식이다.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식품 제조업자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려

야 하는데는 설명이 필요없다. 그런데도 콩나물, 두부, 참기름, 물엿, 해초무침, 자장면 등 불맛 식품 파동은 늘 스쳐지나갔다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그 전하의 못된 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돈에 눈먼자들이 양심을 저버린 탐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그럴

사기꾼 상인의 전생

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 전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생으로 내려오는 그 죄업을 다 어쩔려는지 한번 묻고 싶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떤 사기꾼 상인이 있었다. 그는 친구와 장사를 하여 이익

을 많이 남겼다. 간사한 상인은 자기가 이익을 더 챙기려고 친구가 과식하여 소화불량으로 죽을 날을 기다렸다. 부처님께서는 '그 간사한 상인은 전생에도 보러하였다'며 과거의 일을 말씀하셨다. 옛날 현인과 대현인이 공동으

여 내가 대현이니가 두뿔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자네가 앞당다니 저 목신에게 물어보라. '목신님 우리의 송사를 공경하게 관해 주십시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나무는 대현인이 두 뿔을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때 현인은 뿔을 가져다 나무에 붙을 뻔했다. 그 아버지는 불에 탄 몸으로 땅에 떨어지며 계승을 잃었다. '현인은 실로 착하고 대현인이야말로 실로 나쁘다. 아들이 대현인이었기에 그 아버지만 나는 이렇게 됐다' 국민 건강의 파수꾼인 보건복지부의 신속하고 준엄한 조치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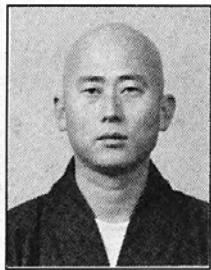
새싹을 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남을 업신여기면

아는 것이 조금 있다하여 스스로 뽐내면서 남을 업신여기면 마치 장님이 촛불을 든 것과 같아 남을 비추지만 자기를 밝히려는 못한다. (법구비유경)

현성 이사장

칠보문화 축제 및 백일 용맹 기도 비구스님 열 분이 재가불자와 함께 24시간 백일간 철야정진합니다



21C로 향하는 새로운 시대가 밝아 오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과 국제적 문화 개방의 영향으로 감각적이며 행동적인 문화가 형성되고 있음은 불교가 행하는 불교로서 이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 가야 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각양각색의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세대의 가치관이 난무하는 혼돈의 사회 속에 휩쓸리지 않고 개인의 참된 가치관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정신적 빛깔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고도의 경제성장과 문화의 다변화로 인한 여러 사회 현상을 살펴 보면, 상승된 여성의 인권과 핵가족화의 부산물인 소외된 노인 계층의 문제, 물질문명의 병폐인 건전한 가치관의 부재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현상의 부산물을 대비심으로 흡수하여 창조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우리 불교가 함으로써 이 시대의 문화에 이끔력 감이 아닌 이 시대의 문화를 재생산하고 이끌어 가는 행동하는 불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자각에 입하여 '한길 칠보회'에서는 무량한 불법의 힘으로써 사회복지 시설을 마련하기로 원력을 세웠으니, 여성들의 창조적인 활동과 사회적인 발전의 터가 될 '불교 현대 종합관'과 소외된 노인층을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품으로 감싸기 위하여 한길 수양원을 설립하고, 또한 미래 세대에 영명하고 밝은 반야의 지혜로, 스스로 자신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관을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다함께 평등회 조화롭게 살아 가는 불국도의 실현을 앞당기

위하여 끊임 없이 부처님의 대지에 안에서 올바른 사회복지 시설을 일구어 나갈 것이며, 행동하는 적극적인 불교로서 태어나기 위해 우리 '한길 칠보회'는 신명을 다 바칠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뜻을 대외에 널리 알려 많은 사부대중들의 뜻을 한데 모으고자 이 행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니 많은 협력과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지 무상 합장

■ 불기 2540년 제 1회 '칠보(七寶)문화 축제'는 - 대구·경북 지역의 불교 문화 복지 사업을 대표할 불교 현대 종합관과 노인 복지 한길 수양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대외에 알리는 행사이다.

■ 불기 2540년 제 1회 '칠보(七寶)문화 축제'는 - 불법의 진리를 바탕으로 한 '민족 정서 함양을 위한 티'를 건립함이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임을 만천하에 알려 대중을 일치단결로 이끄는 문화축제이다.

■ 불기 2540년 제 1회 '칠보(七寶)문화 축제'는 - 시대적 변화에 의해 새로운 불교 문화를 필요로 하는 당면성을 대중적으로 인식하는 행사이다.

주최: 대구 칠보사 주지 무상 합장 (053)963-8975

주관: 불교극단 '바람' 기획 사업단 (02)737-0885

행사 구성안 개요 - 불기 2540년 5월 8일 (수) ~ 5월 11일 (토)

사회자: 이재섭 외 1명

구분	행사명	행사 일정/시간	비고
개막행사	1)개막제- 개막행사 (개막 법회, 노인 문화 대축제)	5월 8일 (수) (오전11시)	· 개막 법회 이후 취타대, 사물놀이, 풍선 뛰우기, 바리춤, 북춤, 국악 대형연, · 노인 전통 혼례식, 노인 정기자랑, 음식경양
주행사	1)칠보 노래 자랑 (신도 및 시민 노래 경연 대회) 2)포바	5월 10일 (목) (오전 1시)	· 연예인 친조 출연
주행사	1)초청 세미나 2)합창 대회 3)신도 백일장 4)불교 관련학 연구	5월 10일 (금) (오전 11시) (오후 1시)	· 한국 불교와 여성의 역할의 다수 · 나의 신명 찾기 · 당일 시상 (주부, 청소년, 노인 대상)
폐막 행사	1)개막제- 화합의 장 2)칠보 체육 대회 3)연예인 관조 출연 4)사물놀이 5)폐막 법회	5월 11일 (토) (오전 10시)	· 승려 기수 초충 · 노년층, 중장년층, 청소년층 회합을 유도 · 연예인 가수 출연 · 줄다리기, 제기차기, 널뛰기, 공물리 기 등 다채로운 행사

■ 행사 후에는 비구 스님 열 분과 함께 하는 백일 철야 정진 기도가 이어집니다.